

중국 조선족 아동의 초기 다단어 발화의 의미관계 분석

이 귀 옥

이 혜 린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체계가 상이한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중국조선족 아동들의 제 1 언어인 한국어 의미관계 습득을 조사하고, 단일언어아동인 한국아동의 의미관계 습득유형과 비교하여 이중언어아동의 언어발달과정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연변의 조선족 1,2,3세 아동 총 35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장난감세팅하에서 약 30분동안 아동과 주양육자의 상호작용과정에서의 아동의 자발발화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이 아동들의 자발발화 중 두 단어 이상 발화를 발췌하여 Retherford 등(1981)의 의미유형 분석범주에 따라 의미유형을 분류한 후 2어와 3어 의미관계를 분석하여 아동들이 사용하는 의미관계 유형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순위를 매겨서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단일언어아동의 의미관계 분석(Brown, 1973; 김영태, 1997, 조명한, 1982)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II단계 아동들이 I단계 아동들보다 2어 의미관계와 3어 의미관계 모두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특히 3어 의미관계는 II단계 아동들이 I단계아동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여 의미관계 발달과정은 단일언어 아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일언어아동들과 비교한 결과 이중언어아동들인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의미관계 발달이 단일언어아동들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를 습득하는 초기에는 이중언어아동들이 단일언어아들보다 언어발달이 늦지만, 이중언어아동들의 언어발달 과정은 단일언어 아동과 동일하다는 선행연구(De Houwer, 1995; Gathercole, in press)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주요어: 의미관계, 이중언어, 자발발화

아동들은 생후 12개월경이 되면 첫단어를 말하고, 17~18개월경이 되면 두 단어(two-words)나 두 단어 이상의 다단어(multi-words)로 된 초보적 문장을 사용한다. 아동이 한 단어만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한 단어가 의미기능의 표현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 한 단어가 첨가되어 두 단어 조합의 표현은 두 단어 조합의 원시적인 형식, 즉 두 마디 말로 발달된다. 초기의 두 마디 말은 이전에 단일 단어로 표현하던 의미기능이 단지 형식만 두 단어 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뽑아내어 의미관계를 표현하는 2어 문장으로 발달한다. 그러므로 두 단어 조합의 출현은 아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것이다(이승복, 1994). 아동은 두 단어 조합을 시작한 이후 곧 세 단어, 네 단어 등의 조합을 산출한다. 같은 시기에 단일 단어도 나타나고, 두 단어 및 그 이상의 단어조합 역시 출현한다. 그러면서 단일 단어 표현의 수는 줄어들고 복합적 조합의 수는 증대한다.

아동들의 초기 언어발달과정에서는 언어발달의 개인차가 심하므로 아동이 다단어 발화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평균형태소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s=MLU)가 발달진행의 좋은 지표가 된다(이영자, 1997; 조명한, 1982; Brown, 1973; Retherford, 1987). MLU의 사용을 처음으로 제안한 Brown(1973)은 그 단계를 다섯 개로 나누어 I단계는 1.75까지, II단계는 2.25, III단계는 2.75, IV단계는 3.50, V단계는 4.00까지로 설정하였다. Brown의 다섯 단계는 그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고 체계화되었는데, Miller와 Chapman(1981)은 영어권 아동 1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달

단계를 V단계로 나누고 I단계와 IV, V단계를 초기와 후기로 각각 나누어, 초기 I단계(MLU=1.00~1.49), 후기 I단계(MLU=1.50~1.99), II단계(MLU=2.00~2.49), III단계(MLU=2.50~2.99), 초기IV단계(MLU=3.00~3.49), 후기 VI단계/초기V단계(MLU=3.50~3.99), 후기 V단계(MLU=4.00~4.49) 등으로 설정하였다. MLU가 초기 언어발달 단계에서는 표현언어발달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그 상관연령의 한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Brown(1973)은 MLU 4.0까지, Miller와 Chapman(1981) 등은 4세까지 MLU가 생활연령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으나 Klee와 fitzgerald(1985)는 MLU가 3.00(Brown의 III단계)까지 MLU와 문법발달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MLU가 3.0이하인 아동들의 경우에는 연령보다는 MLU가 아동의 생산적 언어 수준을 더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Klee & Fitzgerald, 1985; Rondal, Ghiotto, Bredart, & Bachelet, 1987).

아동이 두 단어 이상을 말하게 되는 시기는 문법발달이 시작되는 시기로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초기 다단어인 “mommy sock”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주축문법에 의하면 그것이 <주축어-개방어>로 정의되지만, 이 두단어 조합이 <엄마의 양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엄마가 양말을 신긴다>의 뜻으로도 쓰이므로 <소유자-소유>와 <행위자-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진(Bloom, 1970) 이후로 아동의 초기 다단어 조합을 의미론적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왔다(김영태, 1998; 이승복, 1994; 조명한, 1982; Bloom, 1970; Brown, 1973;

Retherford, 1987). 이러한 아동의 초기 두 단어 이상의 발화는 일관성있는 의미관계가 나타나(Bloom, 1970), 아동의 언어발달 및 인지 발달수준을 반영한다(Brown, 1973).

아동의 초기 발화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할 때는 의미유형(semantic role)과 의미관계(semantic relations)를 사용한다. Nelson(1973)은 1세와 2세 사이의 영아 18명을 대상으로 영아들이 사용하는 첫 일어 표현을 기록하여 분석한 결과, 명사(호격명사와 일반명사로 구분), 동사(행위를 설명, 요구 전달하거나 주의를 요구하는 표현), 수식어(사물 또는 사건의 속성이나 질을 표현하는 말), 개인적-사회적 상태나 관계표현(개별적인 느낌 등의 정의적 상태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말, 예: 주세요, 줘, 아파), 그리고 문법적 기능어(예: 무엇, 어디 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Bloom(1973)은 한 단어 수준의 아동들의 발화를 사물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실체어(substantive)와 기능어(function)로 분류하였고, Retherford 등(1981)은 좀더 세부적인 의미관계유형 분류체계를 제시하여 15가지의 주요 의미유형범주(semantic categories)로서 행위(action), 장소(locative), 행위자(agent), 대상(object), 지시어(demonstrative), 재현(recurrence), 소유자(possessor), 수량(quantifier), 경험자(experiencer), 간접대상(recipient), 수혜자(beneficiary), 공존자, 창조물, 도구, 상태(state) 외에도 실체(entity), 부정(negation), 체언수식(attribute), 용언수식(adverbial) 등의 문법적 유형범주(grammatical categories)와 대화구성의 기능이 강한 대화적 유형범주(conversational devices)(예, attention, affirmation), 그리고 기타 관습적 표현인 자동어구(routines)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Brown의

I-III단계에 해당하는 아동 11명의 발화를 분석하여, 이 시기의 아동들은 행위자, 대상, 지시, 재현, 소유자, 부정, 체언수식 등의 의미유형을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Retherford 등이 제시한 의미유형분류체계는 아동의 초기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적이고 화용적인 구성요소들을 무리하게 의미론적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영태, 2002).

개별 의미유형들이 2개 이상으로 조합될 때 의미관계가 형성되므로 이러한 의미유형 분류를 기초로 아동의 단 단어 발화의 의미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Brown(1973)은 자신이 관찰한 세 어린이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의 12아동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아동의 2단어 발화의 보편적인 의미관계를 제시하였는데, MLU가 1.01-2.49수준인 I-II단계의 아동들이 자주 쓰는 2어 의미관계로 행위자-행위(agent-action), 행위-대상(action-object), 행위자-대상(agent-object), 행위-장소(action-locative), 실체-장소(entity-locative), 소유자-소유물(possessor-possession), 수식-실체(attribute-entity), 지시어-실체(demonstrative-entity) 등의 8가지를 보고하였고, 3어 의미관계 유형들로는 행위자-행위-대상, 행위자-행위-장소, 행위-대상-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조명환(1982)은 한국 아동 5명을 종단적으로 관찰하여 Brown(1973)의 의미유형분류체계에 따라 아동의 두단어 의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5명의 아동들은 1;7-1.11세에 두단어 의미관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Brown(1973)이 제시한 ‘행위자-행위’, ‘목적-행위’, ‘행위자-목적’, ‘장소-행위’, ‘행위자-장소’, ‘소유자-소유’, 그리고 ‘실체-수식’ ‘지시하기-실체’ ‘행위자-장소’ 등의 8가지 외에도 ‘공존자-행위’, ‘수여자-행위’ 등이 5명

모두에서 나타나 이 10가지를 한국아동들의 보편적인 의미관계로 보았다. 세단어 이상의 의미관계는 1;7-2;2세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5명 모두에서 나타난 세단어 의미관계는 ‘행위자-목적-행위’와 ‘행위자-장소-행위’였다. 김영태(1998)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2어, 3어 의미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부정, 장소, 수단 등의 의미유형을 ‘배경’이라는 의미유형에 포함시키는 등 배경과 서술 등의 새로운 의미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세와 2세 아동들 모두 실체-서술, 대상-행위, 배경-행위, 배경-서술, 행위자-행위 등을 2어 의미관계로 많이 사용하였고, 실체-배경-서술, 대상-배경-행위, 행위자-대상-행위, 대상-용언수식-행위, 실체-용언수식-서술 등이 빈번한 3어 의미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조기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면서 이중언어아동들의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이중언어아동들의 언어발달이 한 가지 언어만 배우는 단일언어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중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어휘발달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이중언어아동의 발달이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8-30개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Pearson, Fernandez, Oller(1993)의 연구에서는 이중언어아동들이 이해하는 어휘량은 단일언어아동과 비슷하였으나, 자발발화에서는 단일언어아동들보다 더 적은 어휘를 사용하였다. 5세이상 아동들의 경우에도 이중언어아동은 단일언어아동과 비교했을 때 이중언어아동들이 단일언어아동들보다 이해하는 어휘의 수가 더 적었다(Rosenblum & Pinker, 1983; Umbel, Pearson, Fernandez, & Oller, 1992). 스페인어-영어 이중언어아동과

영어를 사용하는 단일언어 아동을 비교한 Gathercole(in press)의 연구에서도 문법 획득에 있어서 이중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한국어 이중언어아동과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을 비교한 연구(황혜신 & 황혜정, 2000)에서도 6세이전까지는 이중언어아동들의 언어발달이 단일언어아동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아동의 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어휘력검사를 통해 한어 단일언어아동과 비교한 연구(이귀옥 등, 2003)에서도 5세 이전까지는 이중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언어능력이 늦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De Houwer(1995)는 이중언어아동의 문법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문법 발달의 과정(course)은 단일언어아동과 이중언어아동이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였고, 대체로 이중언어아동들이 단일언어아동들보다 언어발달이 다소 늦어지지만, 그 차이가 정상발달 범주에서 벗어날 만큼 크지는 않다는 데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Hoff, 1997). 이처럼 어휘수나 일부 문법 발달 영역이나 일반적인 언어능력에 있어서는 이중언어아동들들에 관한 연구가 행해져왔으나 문법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다단어 발화시기에 이중언어아동의 의미관계발달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한국어 의미관계 습득유형을 분석하여 그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단일언어아동인 한국아동의 의미관계 습득유형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국 조선족 아동의 2-3 단어 발화의 의미관계 습득유형은 무엇이며 발달에 따른 차

이는 어떠한가?

2. 중국 조선족 아동의 2-3단어 의미관계 습득양상이 한국아동의 단일언어 습득과정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 만1, 2,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의 자발발화를 녹화한 후 전사하여 아동의 총발화수가 100발화이상인 아동들 중 Brown(1973)의 I, II단계에 해당하는 1세(19개월~22개월) 7명, 2세(24개월~35개월) 15명, 3세(36개월~45개월) 13명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부모들은 모두 조선족으로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환경에 속해있는 아동들이었다. 이 아동들의 한국어와 중국어 실력에 대한 부모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와 중국어가 비슷하게 능숙하다고 답한 부모가 56.6%이고,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능숙하다고 답한 부모는 28.3%이며,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더 능숙하다고 답한 부모는 15.1%였다. 28%정도의 부모들이 아동들의 한국어 실력이 중국어실력보다 뒤떨어진다고 답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 모두 한국어로 주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완벽한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아동들로 볼 수 있다.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유치원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일한 장난감세팅하에 약 30분동안 각 아동과 주양육자의 상

호작용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아동과 주양육자의 자발발화를 전사하였다. 먼저 관찰 장소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장난감을 배치하였다. 장난감은 아동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것으로서 유선 전화기 1대, 무선 전화기 1대, 아기 인형, 우유 병, 비행기 1대, 자동차2대, 동물 시리즈 (동물 2마리, 공룡 1마리), 호랑이 인형, 소꿉놀이(가스렌지, 접시, 컵, 포크, 숟가락,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등을 준비하였다. 아동과 어머니가 유치원에 방문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떠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후,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언어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답형 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 개방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점을 어머니에게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녹화하였고 녹화 후 바로 전사하였다.

이 아동들 중 아동의 자발발화가 100발화이상인 아동들에 대해서 한국어발화분석 컴퓨터 프로그램(KCLA)(배소영, 2000)을 이용하여 MLU(총형태소수/총발화수)를 산출하고 Brown(1973)의 MLU 단계에 따라 아동들을 I 단계와 II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들의 자발발화 중 두 단어 이상 발화를 발췌하여 Retherford(1987)의 의미유형 분석 범주에 따라 의미유형을 분류하고, 아동들의 2어와 3어 의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한가지 의미유형에 두 단어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가고 있다- '행위') 의미관계는 의미단위(semantic unit)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Retherford, 1987). Retherford(1987)는 15가지 주요 의미유형과 단일어실체, 다단어실체, 부정, 체언수식, 용언수식 등의 5가지 문법적 유형을 포함하여 총 20가지 의미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아

동의 다단어발화를 분석하였으므로 의미유형 중 ‘단일어실체’ 즉 한단어발화인 ‘실체’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어 특성상 간접목적(recipient)과 수혜자(Beneficial; 예- for me)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수여자라는 한 가지 의미유형을 사용하여 총 18가지 의미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가능한 2어와 3어 의미관계를 모두 분류한 후 각 아동이 사용한 2어와 3어 의미관계 유형의 출현빈도를 계산하여 그 순위를 매기고, 각 유형마다 사용한 아동의 수를 해당 단계의 총아동수에 대한 비율(사용아동율)로 분석하였다. 순위와 사용아동율을 모두 사용한 이유는 첫째, 한 아동이 특정 의미관계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한다면 그 의미관계의 순위는 올라가게 되어 순위와 사용아동율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순위와 사용아동율을 함께 살펴보고 그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한 조명한(1982)은 순위는 계산하지 않고, 전체(5명) 아동들이 모두 사용한 즉, 사용아동율이 100%인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김영태(19978)는 사용순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두 연구와 비교에 용이하도록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였다. 그런 다음, 사용아동율이 높은 의미유형들을 중심으로 조선족 아동의 의미관계 습득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단일언어아동인 한국아동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결 과

중국 조선족 아동의 2어, 3어 의미관계 습득유형

Brown(1973)의 I단계와 II단계에 해당되는 대상아동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족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Brown(1973)의 MLU단계에 따른 분류

연령	성별	I단계(명)	II단계(명)
1세	남	3	1
	여	3	0
	총	6	1
2세	남	4	4
	여	6	1
	총	10	5
3세	남	3	6
	여	2	2
	총	5	8
총 대상수		21	14

먼저, 아동들의 2어 의미관계 유형과 사용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I단계 아동들의 2어 의미관계 유형의 순위는 지시어-실체, 대상-행위, 체언수식-실체, 소유자-실체, 장소-행위, 실체-상태, 용언수식-행위, 행위자-행위, 수단-행위, 경험자-상태 등의 순이었다. 사용아동율을 살펴보면, 50%이상의 아동들이 대상-행위, 지시어-실체, 체언수식-실체, 행위자-행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단계 아동들의 2어 의미관계의 사용순위는 지시어-실체, 대상-행위, 행위자-행위, 실체-상태, 장소-행위, 용언수식-행위, 수단-행위, 체언수식-실체, 소유자-실체, 경험자-상태 등의 순이었다. 이를 사용아동율을 살펴보면, 50%이상의 아동들이 이 의미관계 유형들 중 수단-행위와 소유자-실체를 제외한 8가지 의미유형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실체 의미관계의 경우 단일언어 아동들의 연구(조명한, 1982)에서는 가장 일찍 나타나는 초기 의미관계 유형이었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좀더 발전된 유형으로 변화하였으나 이중언어아동인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경우에는 I단계뿐만 아니라 II단계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2어 의미관계 유형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중언어 아동들의 2어 의미관계 유형발달은 단일언어 아동과 매우

유사하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발달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들의 3어 의미관계 유형과 사용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2> 조선족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2어 의미 관계 유형과 사용 순위 및 사용아동율

단계	순위	의미관계	사용아동율	예
I단계	1	지시어-실체	66.6%	이게 우유(S:19개월)
	2	대상-행위	76.1%	요거 하게(S:20개월)
	3	체언수식-실체	57.1%	예쁜 아기(O:34개월)
	4	소유자-실체	47.6%	애기 코(M:34개월)
	5	장소-행위	42.8%	여기서 하자(J:35개월)
	6	실체-상태	47.6%	우유 있다(K:31개월)
	7	용언수식-행위	47.6%	다 씻었다(W:34개월)
	8	행위자-행위	57.1%	엄마가 해(H:17개월)
	9	수단-행위	28.5%	우유로 먹어(U:24개월)
	10	경험자-상태	28.5%	애기 곱다(N:42개월)
II단계	1	지시어-실체	100.0%	그건 공룡(P:44개월)
	2	대상-행위	100.0%	이거 치워(K:27개월)
	3	행위자-행위	78.5%	애기 먹었다(L:40개월)
	4	실체-상태	71.4%	비행기 있다(L:20개월)
	5	장소-행위	78.5%	어디 가니(C:41개월)
	6	용언수식-행위	71.4%	빨리 오쇼(A:39개월)
	7	수단-행위	28.5%	이걸로 먹어(S:45개월)
	8	체언수식-실체	50.0%	불끄는 차(L:40개월)
	9	소유자-실체	28.5%	애기 빨대(K:32개월)
	10	경험자-상태	50.0%	난 몰라(P:44개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I단계 아동들의 3어 의미관계 유형의 순위는 대상-부정-행위, 실체-장소-상태, 행위자-장소-행위, 행위자-대상-행위, 대상-수단-행위, 대상-장소-행위, 대상-용언수식-행위, 행위자-용언수식-행위 등의 순이었다. 사용아동율을 살펴보면, 40% 이상의 아동들이 행위자-대상-행위를 사용하였고, 24%정도가 대상-부정-행위를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어의미관계는 20% 미만의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I단계 아동들은 여러 가지 3어 의미관계를 빈번하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I단계 아동들은 세

단어 의미관계 유형 중 행위자-대상-행위, 대상-용언수식-행위, 대상-장소-행위, 행위자-용언수식-행위, 행위자-장소-행위, 수여자-대상-행위, 실체-장소-상태, 대상-부정-행위, 행위자-부정-행위, 경험자-대상-상태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사용아동율을 살펴보면, 40% 이상의 아동들이 행위자-대상-행위, 행위자-장소-행위, 대상-장소-행위, 수여자-대상-행위, 대상-용언수식-행위, 행위자-용언수식-행위, 실체-장소-상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 아동의 2-3단어 의미관계 습득양상과 단일언어아동의 차이

이중언어아동인 중국 조선족 아동의 의미관계 습득양상이 단일언어아동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결

과를 단일언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Brown(1973), 조명환(1982), 김영태(1998)의 연구와 비교하였다. Brown(1973)은 I, II단계아동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8가지 2어 의미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3어

<표 3> 조선족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3어 의미 관계 유형과 사용 순위 및 사용아동율

단계	순위	의미관계	사용아동율	예
I단계	1	대상-부정-행위	23.8%	차는 못 타(K:39개월)
	2	실체-장소-상태	14.2%	모자 어디 있어(L:19)
	2	행위자-장소-행위	14.2%	내 이거 타고(Y:21)
	4	행위자-대상-행위	42.8%	애기 우유 먹는다(K:31)
	5	대상-수단-행위	19.0%	발로 차를 던져(N:42)
	5	대상-장소-행위	19.0%	떡을 여기다 놓구(U:19)
	7	대상-용언수식-행위	19.0%	차를 어떻게 먹어(H:39)
	8	행위자-용언수식-행위	14.2%	이건 이렇게 선다(C:41)
II단계	1	행위자-대상-행위	85.7%	아빠 문 닫아(K:33)
	2	대상-용언수식-행위	42.8%	요거 이렇게 눌러(P:36)
	2	대상-장소-행위	50.0%	이거 여기다 담아(A:39)
	4	행위자-용언수식-행위	42.8%	애기 빨리 자라(K:32)
	5	행위자-장소-행위	57.1%	아빠 어디 가요(S:40)
	5	수혜자-대상-행위	50.0%	애기 우유 먹여(K:32)
	7	실체-장소-상태	42.8%	불이 어디 있어(J:35)
	8	대상-부정-행위	28.5%	옷을 안 입고갔어(P:36)
	9	행위자-부정-행위	35.7%	애기 안 운다(K:32)
	10	경험자-대상-상태	28.5%	이거 엄마 가져(K:27)

의미관계를 제시하였고, 조명환(1982)은 한국 아동 5명을 종단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Brown(197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김영태(1998)은 2세와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의미관계의 빈도와 사용아동율을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Brown(1973)과 조명환(1982)

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의 대상아동 전체의 2어 의미관계와 3어 의미관계 빈도와 사용율을 산출하였다. Brown(1973), 조명환(1982)의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선족 이중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brown, 1973;조명한,1982)의 의미관계 사용빈도 비교

	Brown(1973)	조명한(1982)	조선족 아동(사용아동율)
2어 의미관계	행위자-행위	행위자-행위	대상-행위(85.7)
	대상-행위	대상-행위	지시어-실체(80.0)
	행위자-대상	행위자-대상	행위자-행위(65.7)
	지시어-실체	지시어-실체	실체-상태(57.1)
	실체-장소	실체-장소	행위-장소(57.1)
	행위-장소	행위-장소	용언수식-행위(57.1)
	소유자-소유(실체)	소유자-소유(실체)	소유자-실체(45.7)
	체인수식(재현)-실체	체인수식(재현)-실체	체인수식-실체(34.2)
3어 의미관계		공존자-행위	수단-행위(28.5)
		수여자-행위	
	행위자-행위-대상	행위자-행위-대상	행위자-대상-행위(60.0)
	행위자-행위-장소	행위자-행위-장소	행위자-행위-장소(51.4)
	행위자-대상-장소	행위자-대상-장소	실체-장소-상태(25.7)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언어 아동들의 의미관계유형과 이중언어아동인 조선족 아동의 의미관계 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Brown(1973)이 제시한 8가지 2어의미관계 중 실체-장소와 행위자-목적을 제외한 모든 행위자-행위, 대상-행위, 행위자-대상, 지시어-실체, 행위-장소, 소유자-실체, 체언수식-실체 등은 이중언어아동인 중국 조선족 아동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2어 의미관계였다. 조명한(1982)은 Brown(1973)이 제시한 8가지 의미관계 외에도 공존자-행위와 수여자-행위가 대상아동 5명 모두에서 나타나 총 10가지의 2어 의미관계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3어 의미관계는 Brown(1973)과 조명한(1982)이 제시한 행위자-대상-행위, 행위자-행위-장소, 행위자-대상-장소 등이 본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의미관계였다.

다음으로 2, 3세 한국 아동 78명의 발화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한 김영태(1998)의 연구와 비교하였다. 김영태(1998)는 수단이나 장소 등을 ‘배경’이라는 한가지 의미유형으로 포함시켰고, 상태서술, 실체서술(-이다), 부정서술(예; 아니야, 싫어)을 포함하는 한가지 의미유형으로 ‘서술’이라는 의미유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상태서술은 선행연구(Brown,1973; Retherford, 1987)에서의 ‘상태’ 의미유형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실체서술(-이다)은 선행연구에서 ‘실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김영태(1998)와 비교하기 위해 실체와 실체서술을 분리하여 실체서술과 상태서술을 모두 ‘서술’이라는 의미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였고, 수단과 장소도 ‘배경’으로 분석하여 연령별로 2어 의미관계와 3어 의미관계를 분석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5가지 의미관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족 이중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김영태, 1998)의 의미관계 비교

의미 관계	연령	순위	김영태(사용아동율)	조선족 아동(사용아동율)
2어	2세	1	실체-서술(87.3)	실체-서술(80.0)
		2	대상-행위(97.4)	대상-행위(100.0)
		3	배경-행위(84.6)	배경-행위(100.0)
		4	배경-서술(76.9)	체인수식-실체(53.3)
		5	행위자-행위(66.7)	행위자-행위(73.3)
	3세	1	대상-행위(97.4)	실체-서술(100.0)
		2	실체-서술(94.9)	배경-행위(93.3)
		3	배경-행위(74.4)	대상-행위(100.0)
		4	행위자-행위(82.1)	행위자-행위(93.3)
		5	배경-서술(74.6)	소유자-실체(46.6)
3어	2세	1	실체-배경-서술(48.7)	행위자-대상-행위(40.0)
		2	대상-배경-행위(48.7)	실체-배경-서술(46.6)
		3	행위자-대상-행위(48.7)	행위자-배경-행위(40.0)
		4	행위자-배경-행위(43.6)	대상-용언수식-행위(40.0)
		5	대상-용언수식-행위(30.8)	대상-배경-행위(33.3)
	3세	1	실체-배경-서술(69.2)	행위자-대상-행위(53.3)
		2	대상-배경-행위(51.3)	대상-배경-행위(66.6)
		3	행위자-대상-행위(46.2)	실체-배경-서술(80.0)
		4	행위자-배경-행위(48.7)	행위자-배경-행위(66.6)
		5	실체-용언수식-서술(38.5)	대상-용언수식-행위(33.3)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2세의 2어 의미관계는 이중언어아동인 중국 조선족 아동들도 실체-서술, 대상-행위, 배경-행위, 행위자-행위 등의 2어 관계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영태(199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세의 경우, 단일언어 아동들은 실체-서술보다 대상-행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언어 아동인 중국 조선족 아동들은 2세아와 마찬가지로 실체-서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언어 아동들의 경우 소유자-실체 의미관계가 빈번한 의미관계유형으로 나타나 이중언어아동의 의미관계 발달이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어 의미관계에서는 2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순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일언어 아동들이 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다섯가지 의미관계와 이중언어 아동들이 빈번하게 나타내 사용하는 의미관계 유형들이 동일하게 나타나 행위자-대상-행위, 실체-배경-서술, 행위자-배경-행위, 대상-용언수식-행위, 대상-배경-행위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3세의 경우에는 단일언어 아동인 김영태(1998)의 연구에서는 실체-용언수식-서술이 대상-용언수식-행위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관계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이중언어아동들은 2세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의미유형들이 그대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최근 세계화 및 교육의 보편화로 문화 간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중언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각 언어의 습득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언어아동들의 어휘발달이나 문법발달은 단일언어아동들보다 다소 늦다는 것이 밝혀져 왔지만 문법 발달이 시작되는 초기 다단어발화시기에 의미관계 발달과정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초기 언어발달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중요한 문제가 의미관계의 습득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언어 습득 과정에서 의미관계의 습득이 단일언어 습득과 비교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이중언어 습득의 본질을 좀더 정확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습득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 다단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의미관계 발달과정이 어떠한지 그 발달과정이 단일언어아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아동의 자발발화를 녹화하여 아동의 발화가 100발화 이상인 아동들 중 MLU 발달단계가 Brown(1973)이 제시한 I, II단계에 속하는 1-3세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하여 2어와 3어 의미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의미관계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I, II단계 아동들 모두 빈번하게 사용하는 2어 의미관계는 지

시어-실체, 대상-행위, 체언수식-실체, 소유자-실체, 장소-행위, 실체-상태, 용언수식-행위, 행위자-행위, 수단-행위, 경험자-상태 등이었다. 사용아동율을 살펴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II단계 아동들이 I단계아동들보다 대부분의 2어 의미관계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II단계 아동들은 I단계 아동들보다 2어 의미관계를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어 의미관계 유형에서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I, II단계 아동들 모두 대상-부정-행위, 실체-장소-상태, 행위자-장소-행위, 행위자-대상-행위, 대상-수단-행위, 대상-장소-행위, 대상-용언수식-행위, 행위자-용언수식-행위 등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2어 의미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I단계보다 II단계 아동들이 3어 의미관계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아동율을 살펴보면 I단계 아동들의 경우 행위자-대상-행위만을 42.8%의 아동들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3어 의미관계는 20%내외의 아동들만이 사용한 반면, II단계 아동들은 <표 3>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3어 의미관계를 40%이상의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II단계 아동들이 3어 의미관계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한 단어만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한 단어가 의미기능의 표현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 한 단어가 첨가되어 두 단어 조합의 표현은 곧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 조합 즉 2어 문장으로 발달한다. 2어 문장의 사용은 다시 한 단어를 추가한 세 마디 말이라는 세 단어 조합으로 발달되는데, 이 세 마디 말도 처음에는 2어 문장의 의미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내 세 단어가 각기의 고유한 의미기능

을 표현하는 3어 문장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언어 발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단일 단어 시기에서부터 어떤 일정한 발달 법칙이 있다. 단일 단어의 형식은 우선 웅알이 시기에서처럼 상황적인 맥락이나 말소리의 억양을 빌어 뜻하는 바를 표현하는 데서 시작하다가 단어에 의미 기능이 담겨진 단일 단어로 사용되고, 이 단일 단어의 의미기능은 두 단어 조합의 형식을 빌어 두 마디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다가, 다시 이 두 단어 조합의 형식에 충족되는 두 단어의 의미관계 표현으로 발달되며, 세 단어 조합에서도 먼저 두 단어 조합의 의미관계 표현의 기능에 세 단어 조합-의 형식이 먼저 사용되다가, 세 단어의 의미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으로 발달이 진행된다.(이승복, 1994). 본 연구에서도 I단계 아동들보다 II단계 아동들이 2어 의미관계도 더 많은 아동들이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2어보다 발달된 의미관계유형인 3어 의미관계를 I단계에서보다 II단계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하여 의미관계발달과정은 이중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중언어아동들의 언어발달과정에 있어서는 단일언어아동들과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De Houwer, 1995)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동의 두 단어 의미관계와 세 단어 의미관계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두 단어에서는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 단어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행위중심의 구성이 많고(조명한, 1983), 세 단어 의미관계는 대부분 두 단어 의미관계를 확장한 것이다(조명한, 1983; 김영태, 1998; Brown, 1973). 이러한 발달적 변화는 이중언어아동인 조선족 아동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2어 의미관계와 3어 의미관계를 비교해보면, 높은 빈

도의 3어 의미관계(예, 대상-배경-행위, 행위자-대상-행위)는 모두 공통된 의미, 즉 행위를 가지는 2어 의미관계들(대상-행위, 배경-행위, 행위자-행위)을 조합한 형태이다. 이를 통해 이중언어아동들의 의미관계 발달과정이 단일언어 아동들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중언어아동들의 의미관계 발달과정과 단일언어 아동들의 의미관계 발달과정을 비교하였는데, 먼저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의 MLU결과를 살펴보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I-II단계에 속하는 아동들이 1-3세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지만, 평균적으로 한국 아동들은 2세가 되면 MLU가 3.00이 넘는다는 결과(김영태, 1997)로 미루어 볼 때 이중언어아동들의 언어발달이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다소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Brown(1973)과 조명한(1982)의 연구에서는 발생빈도나 사용아동율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연구에서 나타난 우세한 의미관계 유형들이 본 연구의 이중언어 습득에서도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일언어아동들의 의미관계 발달과 이중언어아동들의 의미관계발달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와 사용아동율을 분석한 김영태(1998)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에서는 이중언어 아동들이 단일언어아동들보다 발달이 다소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 소유자-실체 의미관계는 매우 일찍 나타나므로(조명한, 1982) 단일언어 아동들의 경우 3세에서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3세 아동들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단일언어 아동의 경우에는 2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실체-서술의 의미관계가 3세에서는 그 빈도가 낮아졌으나 이중언어아동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3세에서도 가장 빈번한 의미관계로 나타나 이중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과 비교하여 의미관계 발달이 다소 지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단어 의미관계에서는 2단어 의미관계를 조합하여 3단어 의미관계를 만들고, 행위중심의 구성이 주를 이루는 단일언어 아동의 세단어 의미관계 발달양상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언어아동들이 초기의 언어발달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언어발달 과정은 단일언어 아동과 다르지 않음(Hoff, 1997; Gathercole, in press)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조선족의 아동의 언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이중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발달의 초기에는 발달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발달과정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써 중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조선족 아동들이 한국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어 교육에 좀더 힘쓰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 자료와 단일언어 발달 자료와의 비교는 분석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1-3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동일한 분석 기준을 사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좀더 나이든 아동들의 언어발달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언어발달에는 양육자의 태도나 양육환경, 언어습득에 대한 문화적 가치 등 많은 변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중언어습득이 단일언어발달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더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

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태(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고찰. *인간발달연구*, 25, 115-135.
- 김영태(1998). 한국 2-3세 아동 문장의 의미론적 분석: 의미단위수, 의미유형,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3, 20-34.
-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배소영(2003). *한국어발화분석2.0(KCLA2.0)*.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6), 1-14.
- 이승복(1994).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정민사.
- 이영자(1997). *유아언어교육*. 서울: 양서원.
- 조명한(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 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 Bloom, L(1970). *Language development in working-class black children: An examination of form, content, and 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ity.
- Brown, R(1973). *A First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 Houwer, A.(1995). *Bilingual Language acquisition*. In P. Fletcher & B. MacWhinney(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Oxford: Blackwell.

- Gathercole, V. C. M.(in press). Monolingual and bilingual acquisition: Learning different treatments of that-trace phenomena in English and Spanish. In D. K. Oller(Ed.),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Hoff, E.(1997). *Language Development*. ny.
- Klee, T. & Fitzgerald, M. D.(1985). The relation between grammatical development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 *Journal of Child Language*, 12, 251-270.
- Miller, J. F., & Chapman, R. S.(1981).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154-161.
- Nelson, K.(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ren Development*, 38.
- Oller, D. K., & Pearson, B. Z.(in press). Assessment the effects of bilingual: A background. In D. K. Oller (Ed.),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Clevedon, UK:Multilingual Matters.
- Pearson, B.Z., Fernandez, S. C., Oller, D. K.(1993). Lexical development in bilingual infants and toddler: Comparison to monolingual norms. *Language Learning*, 43, 345-368.
- Retherford, I.(1971). Production of utterances and language acquisition. In D. Slobin(Ed.), *The ontogenesis of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Retherford, I.(1987). *Guide to analysis of language transcripts*. Wisconsin: Thinking Publications.
- Retherford, I., Schwartz, B., & Chapman, R.(1977).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emantic relation in mother and child speech*.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Acquisition.
- Rondal, J. A., Ghiotto, M., Bredart, S., & bachelet, J. F.(1987). Age-relation, reliability and grammatical validity of measures of utterance length. *Journal of Child Language*, 14, 433-446.
- Umbel, V. M., Pearson, B. Z., Fernandez, S. C., & Oller, D. K.(1992). Measuring bilingual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ies. *Child Development*, 63, 1012-1020.

The semantic relations of Korean children's multiword utterances in Yanji, China

Kwee-Ock Lee

Hae-Ryun Lee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ung Univ ·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book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tegories of semantic relations between words in the early multiword utterances in order to examine the semantic relations'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bilingual children and difference with monolingual of semantic relations categor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 children from 1 to 3 years of age and divided two groups using Brown's I stage and II stage. Each child's spontaneous natural speech during interaction with his/her caregiver was videotaped for about 30 minutes in which the same toys were provided as those at the nursery school attended by the child. The children's spontaneous utterances were transcribed and analysed for the semantic relations using Retherford's(1987) 20 semantic roles and KCLA(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2.0, 2000). According the semantic roles, we analysed children's two-unit and three-unit semantic relations, then analyzed percentage of children and ranking of categories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and compared this data with studies of monolingual children.

The result showed that children of II stage more used almost semantic relations than of I stage, especially in three-unit semantic relations children of II stage more frequently used than children of I stage.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milar developmental sequence in the several semantic categories. Comparing this data with monolingual children identified that bilingual children's development of relation delayed than monolingual. So, this study is consistent with De Houwer(1995) and Gathercole(in press).

Key words: semantic relations, bilingual, spontaneous utterance